

국내 일본소설 인기, 그 뒤안...

출간 경쟁 과열, '3년전 비해 인세 3배'
 '세대 아우른 장르 확대' 힘입어 인기
 매니아층도 생겨...유명 작가 중복출간도

무라카미 하루키와 무라카미 류, 시오노 나나미 등 국내에서 소위 브랜드 작가군으로 일컬어지던 일본 작가들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성에 탐닉하고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내용으로 대중적 인기를 얻은 요시모토 바나나, 에쿠니 가오리, 츠지 히토나리 등의 연애소설 작가를 거쳐 애니메이션의 영향을 받은 세대인 최근의 젊은 작가들을 일본 내에서는 '차세대 작가'로 부른다.

국내에서는 최근 이사카 코타로가 그 대표주자로 꼽힌다. 일본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작품 《사신치마》를

비롯, 《마왕》《중력 빼एको》 등이 근간 여러 출판사를 통해 동시출간 되면서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 가볍고 경쾌한 모습과 기발한 상상력을 펼치면서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독자들과 고민과 맞닿아 있어 세대를 아우르는 인기를 얻고 있다는 평이다. 매니아 팬을 거느리는 또 다른 작가로는 오쿠다 히데오를 들 수 있다. 제313회 나오키문학상을 수상한 소설 《공중그네》는 국내에 소개된 그의 첫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서점가 소설 불황속에서도 30쇄를 찍는 성과를 올렸다. 그 여파인지 올해만 해도 《라라피포》《남쪽으로 튀어》《걸》 세 작품이 각각 다른 출판사의 이름으로 출간됐다.

이 같은 현상은 국내 소설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낮아진데다 다양한 장르가 정착된 일본 소설에 매료된 매니아 팬층이 꾸준한 소비패턴을 보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출판사들은 앞 다퉈 인기 작가 관련 계약에 경쟁에 열을 올리는 실정이다.

최근 추리작가 미야베 미유키의 소설 《모방법》(전3권)을 출간한 문학동네는 아사다 지로의 작품 6권을 비롯 히라노 게이시로 등 차세대 작가들의 작품을 활발히 출간 중이다. 일서 기획팀 양소현 씨는 "일본 소설은 국내 팬층이 두터워서 출판사들이 높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출판사의 기존 출판 이미지를 고려 "팬시하고 가벼운 이미지 중심의 일서들 가운데서도 진중한 무게감을 주는 작가들을 우선 섭외한다"고 작품 선택 기준을 소개했다.

이시다 이라와 이사카 코타로 등의 작품을 출간한 작가정신의 김혜정 편집장은 "각 출판사마다 자사의 성향을 반영할 수 있는 작가 발굴에 노력하



고 있다”며 “무리하게 경쟁하지는 않지만 기획한 컨셉에 맞는 작가라면 경쟁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로운 작가 소개에 노력을 기울일 새도 없이 최근에는 국내 출판사들의 과다 경쟁으로 몇몇 인기 작가의 작품이 우후죽순 번역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같은 작가의 작품이 출간 시기가 맞물리는 경우가 속출한다. 게다가 새로운 작가를 찾기 위한 한국 출판사들간의 과다경쟁이 이뤄져 선인세 상승, 출간시기 조절 눈치작전 등의 문제가 생겨났다. 출판에이전시 E사의 한 일본서 담당자는 “일본의 문화, 소설시장이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 편”이라며 “근래 한국 출판사들이 노골적으로 선인세 계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일서들은 기본적으로 ‘오픈 경쟁’을 하기 때문에 3년 전에 비해 선인세가 2배 이상 인상됐다는 것이다.

일본 소설 계약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시기는 나오키 문학상과 아쿠타가와상 수상작 발표직후, 그리고 국내에서 소설류 소비가 많은 여름시장까지 일년에 봄, 여름, 늦가을 세 번이다. 이 때 인기 있는 작가의 작품을 먼저 계약하기 위해 국내 출판사들도 경쟁적으로 에이전시를 통해 또는 개별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소설의 경우 일본 내 판권소유가 출판사별로 나뉘어져 있어서 계약의 번거로움이 있다. 그 때문에 조건을 먼저 제시하는 곳과 유리한 계약이 이뤄지고, 종래와 달리 한 작가의 작품이라도 여러 곳에서 출간되는 경우가 잦아졌다. 예컨대 에쿠니 가오리의 경우 소담출판사가 전담 출판 계약을 따내 일괄 출간을 진행했던 전례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출판에이전시의 한 관계자는 “작년에 환율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몇 십 프로씩 선인세가 올라 선블리 덤벼들지 못할 때도 있다”며 “작가 지명도에 따라 판권이 천차만별로 낙찰된다”고 말했다. 또한 출판사들도 인기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출간하지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이같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출간을 한 작품들 중에는 작가 인기도만 의존해 무리하게 판권을 사들인 경우 국내 독자 성향에 맞지 않거나 이전 작품보다 작품성

이 떨어져 기대 못 미치는 판매 성과를 올려 출판기획자들을 고심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출판과다 경쟁의 또다른 문제는 한 작가의 작품이 동시다발적으로 국내시장에 소개될 경우 출간시기가 겹쳐져 출판사간 경쟁이 판매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서로 비슷한 시기에 책을 출간하면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이 되기도 하지만(선인세 계약 같은 경우) 마케팅이 동시다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얻기도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해 초 작가정신에서 첫 선을 보인 이사가 코타로의 《칠드런》이 출간 당시 기대 이하의 판매고를 나타냈지만, 최근에 네 곳 이상의 출판사가 앞다퉈 출간을 진행하면서 작가의 다른 작품에 관심을 갖는 독자들의 구매욕을 자극한 사례가 출판사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일본소설은 통상 판형(4*6)이 거의 동일하게 이뤄지므로, 출판사가 다르더라도 서점에서는 작가별로 한 곳에 진열되어 동시에 노출된다. 독자 입장에서 볼 때 작품성을 따져보기도 전에 선택을 강요당하는 셈이다

여러 비합리적인 출간경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일본소설 인기도는 지속될 전망이다. 출판사의 한 일서 담당 기획자는 “아직 세계적으로 일본문학 중독을 일으킨 하루키 같은 대작가는 나오지 않았지만, 장르를 확장해 세대를 아우르는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는 일본소설에 독자의 관심이 높아진 상태”라고 전한다.

여름시장을 겨냥해 추리소설 붐을 일으킨 미야베 미유키의 경우만 보더라도 시기적으로는 무라카미 하루키와 동시대 작가로 구분되면서도 일본 내 탄탄한 추리소설 시장이 탄생시킨 작가로 소개돼 최근에 빛을 보게 된 케이스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일본 추리소설은 여름 출간 러시 현상을 일으킨 후 매니아 팬들이 생겨나 판매 상승세를 나타낸다.

일본 소설은 물론 일본문화 개방과 더불어 팬층이 두텁게 형성된 점, 그리고 드라마 ‘연애소설’과 영화 ‘플라이 데이 플라이’가 연이어 붐을 일으킨 덕분에 (까다로운 일본측 요구를 감수하는) 일본소설에 대한 방송·영화계의 러브콜도 무시 못할 변수로 작용한다. **한재**

취재 송보경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